
2021년 제20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5. 14. ~ 5. 2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5. 15.	시청률	0.165

【총 평】

‘학살의 참극 - 김포 민간인 희생사건’편은 한국전쟁 당시 9.28 수복과 이듬해 1.4 후퇴, 사이에 일어났으며 어린 아이까지 포함한 가족 단위로 학살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가적 혼란기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통치방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학살을 서슴지 않는 당시 상황에서 국민이 느꼈을 국가의 위협이 얼마나 컸을지 끔찍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였다. 김포시 주민의 6명 유가족의 당시 상황의 증언을 통해 현재까지 희생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픈 상처를 치유해가며 희생자에 대한 넋을 기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례들을 취재했다.

굽이굽이 아름다움 산과 뻗뻗한 숲은 경기도의 자랑이지만 그 속에 묻어둔 아픈 기억은 곡창지대와 관광지대로 유명한 경기도 김포시의 속 깊은 아픔을 잘 보여주었다. 이유 불문한 학살 현장, 학살의 불법성, 유가족들의 학살지, 그리고 50년 후 하성면에서 발견된 유해 등을 다루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묻어난 방송이었다.

【구성 및 내용】

1950년 전후의 국가적 혼란기 국가와 국민의 관계란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앞에 국민이 일방적으로 복종해야만 했던 어둡고 험난한 상황에서 희생을 강요당했던 국민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김포면, 양촌면, 양동면, 하성면 등 각처에서 발굴한 희생자 수는 600여 명으로 추정한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희생된 송해봉 선교사의 경우는 당시 주둔군이었던 스웨덴 군의 도움으로 형사재판까지 이뤄져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던 드문 사례가 소개됐다. 김포 민간인 학살 사건은 일가족 12명이 희생되고 본인은 양할머니의 치마폭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심지어 가족을 희생시킨 치안 대원과 한 마을에서 끔찍한 삶을 살아온 애끓은 이야기, 김포시 경계면 ‘옹주골 정서방’이라 불리던 집성촌의 정씨 일가 54명이 희생된 사건, 김포시 하성면 강범수 일가 37여 명이 희생된 사건 등 가족단위 희생자가 많은 것도 특징이었다.

특히 진실화해위 조사관이 등장해서 이승만 정부의 치안대의 실체에 대해 짧지만 정확한 설명을 곁들인 점이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고 시기적으로 서울 수복 후 1.4후퇴 직전까지로 시기를 한정해 상황을 설명한 점도 이해를 많이 도와주었다. 그 동안은 인민군을 몰아내고 부역 혐의로 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국군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노하게 했다면 오늘은 정부 차원으로 시각을 넓히고 최고위 지도자에게 간접적으로 책임을 돌려 시사한 점이 눈에 띄었다. 또, 인민군과 군경 사이에서 원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희생된 마을 주민들의 원통함을 부각시켜 여운을 많이 남겼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5. 15.	시청률	0.105

【총 평】

‘꽃게장으로 55억 부자! 꽃게장 1호 명인’편은 푸른 서해를 품고 있는 고장, 전북 군산에서 가난한 시절 어머니가 해주신 게장 맛을 잊지 못해 어머니의 게장 맛을 재현하겠다는 일념으로 게장을 만들어 성공한 게장 명인의 일생을 그려냈다.

특히, 꽃게장의 입맛을 남녀노소 대중화하여 누구나 맛나게 즐길 수 있는 간장소스 비법을 개발해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은 과정을 소개했다. 또, 특히, 꽃게장 명인답게, 한방 꽃게장에 사용하는 10가지의 재료들을 소개하였다. 30년 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게장 맛을 위한 주인공의 노력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전국에서 물려든 손님들의 맛있게 먹는 모습과 인터뷰를 준비했고 명인이 만드는 꽃게장의 비결 등을 소개했다. 꽃게장을 만드는 장면을 시작으로 숙성의 과정까지 명인만의 특별한 꽃게장 담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꽃게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갈비집을 운영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퇴직금도 날리고 고생하던 시절을 추억했다.

아내와의 휴게소 나들이 장면을 통해 바쁘게 사느라 제대로 된 여가를 즐기지 못해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밖에 딸과 함께 새벽 비응항으로 나가 신선한 꽃게를 공수해 오는 장면 등을 소개했다. 또, 식품공학을 연구한 딸과 신제품을 연구하는 장면을 통해 단순히 음식 파는 장사꾼이 아니고 음식을 연구하는 장인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전북 군산에서 꽃게장으로 유명한 꽃게장 명인은 군산 근처 야미도가 고향이다. 꽃게가 제철인 요즘 좋은 꽃게를 구하는 것이 일년 장사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새벽부터 꽃게 공판장을 찾는다. 군산에서 18km 떨어진 야미도에서 자란 섬 소년은 어머니의 게장 맛을 잊지 못해 꽃게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꽃게장에 대한 특허를 받을 정도로 맛을 위한 연구에도 헌신적이었다. 갈비집을 준비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날리고 힘들었지만 생갈비집 반찬으로 꽃게장을 준비하다가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꽃게장 전문점으로 탈바꿈했다. 그의 꽃게장은 30년 동안 지역의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해 나름 사업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한다. 특히, 한방재료를 더해 짜지 않고 남녀노소가 즐기는 꽃게장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3번 정도 꽃게 장을 끓여 부어 향균과 비린 맛 제거를 위한 맛있는 꽃게 장을 만들고 있다.

최근 그가 몰두하는 것은 간단한 조리를 통해 맛있는 꽃게장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아내는 물론 자녀들도 꽃게장 사업에 뛰어들었고 연 매출 100억을 넘보는 남부럽지 않은 지역의 사업가로 성공했다. 이제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동안 고생한 가족들과 욕심없이 건강한 삶을 꿈꾸고 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5. 15.	시청률	0.000

【총 평】

‘정원에 울리는 봄의 왈츠 - 전라남도 순천’편은 봄을 맞아 새단장이 한창인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소개했다. 정원의 봄-상춘객-순천만 습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해 전달력을 높였고, 정원사, 국가정원 디자이너를 통해 국가정원을 관리 하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세밀하게 들여다 본 것은 좋은 시도였다. 새소리, 바람소리, 잔디를 깎는 소리, 갈대가 바람에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꽃과 벌, 꽃묘 심기, 순천만 정원 전경, 순천만 습지 갈대밭, 창공을 나는 새 등 소리와 영상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흡인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전남 순천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과 그 풍경을 전한다. 봄이 되면 정원사들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가다듬으며 지난 계절을 정리한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땅속에 구멍을 뚫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통기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더불어 묵은 흙도 쓸어내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해 높은 나무의 가지도 쳐내고 있다. 또, 화단에 새로운 꽃들을 심고 관리하며, 새로운 꽃들이 자리를 잡기 전 화단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도 이어진다. 그리고 순천만 화훼농가에서 여러 꽃들이 속속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차곡차곡 순천만 국가정원의 봄맞이 디자인이 완성되어 간다. 순천만 흑두루미 탄생의 하모니를 주제로 조성된 꾸루꾸미원은 새 생명 탄생에 대한 행복이 꽃씨와 함께 널리 퍼져간다는 의미를 가진 정원이다. 꾸루꾸미원에는 대형 두루미조형물을 비롯한 짱둥어, 농게, 꼬막, 칠게 등 실제 순천만 자연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조형물을 설치해 순천만의 변화무쌍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연 풍경 속에서 담아내고 이로써 발생하는 소리를 상세하게 전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소확행을 느끼는 상춘객들의 표정을 통해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과 힐링을 선사했다.

숲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많은 이들이 국가정원을 방문한다. 안락함이나 여유로움 등 소소한 일상에 잠깐의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순천만 습지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의 사각거림이 귀를 즐겁게 한다.

정원관리사의 진지한 표정과 소박한 이야기는 특별한 느낌을 전했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자신보다 더 훌륭한 정원사나 관리자는 “바람이고 새이고 물이고 공기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것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해낼 수 있었던 이야기였다.

결론적으로 여러 차례 방송한 소재도 접근 방법을 달리 하면 전혀 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내용이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5. 15.	시청률	0.082

【총 평】

‘친절한 한반도 시사토크’는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최근 미국의 대북 접촉 제안 등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목도를 높였다. ‘이슈텔링’은 북한의 한류 열풍 단속 강화 실상과 속사정을 다뤄 흡인력을 제고했다. 북한의 한류통제가 경제난 해결을 위한 묘책인지, 체제유지를 위한 선택인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가 다뤄졌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백신 지원을 하면 대화 재개의 유효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과 남북을 잇는 한류문화가 한반도 평화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 긍정적 솔루션이 제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성 및 내용】

친독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가 세워졌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최근 북한 관련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고 비교적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전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 기조의 구체적 사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핵심단어는 ‘실용적 외교적 접근’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세운 새로운 대북정책기조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할 순 없었으나 이면에 감춰진 복잡한 사정을 알기 쉽게 잘 풀어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정책기조 내용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북한과 먼저 공유하고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는데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힌 이유를 백신을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는데 미국이 현재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또, 한미 정상회담으로 내용을 확대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의미 있었다.

이슈 텔링은 ‘고난의 행군’ 선언 이후 한층 강화된 한류 차단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북한이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주었다. 고난의 행군’ 선언 이후 북한이 내부적으로 ‘장마당세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한류에 대한 단속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관심을 끄는 내용이 많았다.

북한이 강력하게 한류 문화를 단속하는데, 옷차림이나 이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등까지 검열하며 통제하고 있는 현황을 전해 흥미로웠다. 또,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한국식 이름이 많이 등장했는데 출생 신고시 개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한류문화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도를 보였는데, 한국영상 시청 시 기존 5년형에서 15년형으로 늘어났다. 점점 자본주의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북한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5. 16.	시청률	0.030

【총 평】

‘5·18 왜곡, 이제는 끝을 내야할 때’편은 현대사의 비극이면서 민주화의 토대가 된 5·18 민주화운동이 어떤 과정과 결과를 맺었는지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있었다. 또, 역사에 자리매김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려는 민심을 잘 반영했다. 특히, 대구지역 모 언론사의 5.18 관련 만평을 시작으로 아직도 왜곡되고 있는 그 날의 진실에 대한 부분과 편향된 시선을 지적했으며, 누가 발포명령을 지시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신원 확인이 어려워 행방불명자로 남아 있는 이들을 추모하고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현장과 중형을 선고 받고도 사면 복권된 과거의 행적을 낱낱이 고발하며 차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파헤쳐야 할 내용을 시사했다.

【구성 및 내용】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에 관한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뉴스들을 열거하여 5.18 폄훼에 대한 자성과 진상 규명을 철저히 촉구했다. 5.18 부상자회 회원의 인터뷰를 통해 대구지역 언론사의 5.18 관련 만평을 가리키며 언론의 자유와 폭행사이에 있어서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의문을 던졌다.

또,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5.18 비하논란의 실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만들었다. 또, 해당 언론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가짜뉴스 가운데 그 날 광주에 복한 인민군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 가짜 유공자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해 현재까지도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지 입증했다.

새롭게 발족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 소식을 전하고 직권조사중인 내용과 발포 명령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전남매일신문 사진기자가 발포 명령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언을 덧붙여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5.18 사건을 두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그 날’이라고 지칭한 것도 꽤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였다. 5.18 사건으로 행방불명 처리가 되어 버린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취지의 DNA 조사 사업에 대해 설명할 때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억울한 심경이 잘 드러났다. 특히 故 권호영씨의 사연이 그러했는데 극적으로 가족을 찾은 사례만큼 이번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심혈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도 엿보였다.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시위 현장을 찾아 왜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 언제까지 모습을 감출 수 있는지를 재조명하는 부분이 있어 기억에 남았고 마지막 조사위의 계획으로 직접 소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5. 16.	시청률	0.068

【총 평】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불편을 겪어온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 제방도로를 확포장하기로 한 사례와 상가의 시야를 가리고 냄새 공해로 불편을 겪어온 은행나무 가로수를 복자기 나무로 수종을 바꾸기로 한 안동시 사례 등 기초자치 단체의 위민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돼 주목도를 높였다. 나주시의 소음 분진 도로는 점용허가 문제로 4년간 제자리걸음에 그쳤으나 나주시와 익산 국토관리청의 협의로 타결점을 찾았고, 안동시의 은행나무 수종 교체는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았는지, 민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밀착 취재해 사후 관리와 주민 만족도까지 살펴보는 구성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 점용허가 문제로 4년간 제자리...관계기관 협의로 해결

전남 나주시 지석천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대규모 입주로 인해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제방도로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었다. 더 불어 주민들이 지나다닐 길이 없어 제방도로를 다녀야 하는데 가로등도 없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석천에 게이트볼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많아 제방도로에 시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나주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제방도로 공사를 위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가 필요했다. 이에 나주시와 익산청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석천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확정되었다. 익산청의 점용허가를 승인하고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장치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지역사회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된 모범 사례가 되었다. 나주시는 2017년부터 공사 준비를 한바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 간판 가리고 악취 풍기고...은행나무 민원 해결

은행나무는 쉽게 볼 수 있는 가로수이지만 경북 안동시 태화동의 경우 은행나무로 인해 상점의 간판을 가려 상인들은 불만을 제기했었다. 어두워지면 가로등을 나무들이 가려 상당히 어두워지기도 하고 밤길 보행이 불편해서 외출을 꺼리는 경우도 생겼다. 또, 가을에는 은행나무 열매인 은행의 악취로 인한 불편도 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도 볼 수 있었다. 이에 안동시청은 상가와 주민들의 선호도, 의견을 취합해서 해당 가로수를 새로운 종인 복자기 나무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시청은 7월 초순까지 교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5. 16.	시청률	0.054

【총 평】

‘돈이 되는 생활정책’과 ‘노노(NO老)세대 똑똑한 은퇴 정책’이 상세히 소개돼 재활용 품 처리로 돈을 버는 방법과 은퇴를 앞둔 세대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정보 제공으로 정책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재활용품 업사이클링과 수용자 니즈를 포착한 아이템 선정이 관심을 유발했다.

돈이 되는 재활용품팁으로 소개된 ‘비용기 보증금제도’와 ‘폐가전 수거서비스’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였고, 은퇴를 앞둔 노노세대에게 필요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수용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아이템이었다.

【구성 및 내용】

‘돈이 되는 생활정책’과 ‘노노(NO老)세대 똑똑한 은퇴 정책’은 ‘리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링’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재활용 정책과 은퇴세대를 위한 인생 후반부 지원사업을 소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 증가 그리고 중장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시대적 고민과 맞닿아있어 더욱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다. 재활용품 관련 정책을 소개하여 환경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은퇴 이후 실버 세대의 사회 참여를 돕는 정책은 100세 시대에 어울리는 정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단순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강조했는데 현재 시점에 꼭 필요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었다. 특히, 생활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를 통해 재활용 쓰레기가 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비용기 보증금제도에 서 반환 용기 크기에 따른 환불 금액을 안내해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 폐가전 수거 서비스는 전자 폐기물 배출량이 많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무료 수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유익했다.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다. 세계 생활폐기물 트렌드와 OECD 주요국의 재활용품 활용률을 소개했는데 참고할만한 자료가 되었다.

중장년층에게 인생 후반부를 지원하는 ‘생애경력서비스’를 소개하기에 앞서 장난감수리센터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있는 은퇴세대를 소개했는데 좋은 도입이었다. ‘온라인 장년 워크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 후의 계획과 준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퇴직 장년층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며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이어서 가치 있었다.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 아이템 관련 상식을 넓혀주는 구성이 호감을 주었는데, OECD 주요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평가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소개됐고, 정보화된 어르신을 일컫는 웹버족에 대해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5. 16.	시청률	0.008

【총 평】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뉴딜 -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편은 인간과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도시가 인구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데, 어떻게 숨을 불어넣고 재생시켜야 하는지를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 사업의 현주소와 핵심을 점검해보았다. 특히, 도시재생의 정의부터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까지 다양한 도시재생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고, 실제 도시재생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곳을 소개했다. 노화되고 침체되어 쇠퇴하는 도시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기를 되찾고,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역할이 강조되고 주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도시의 개발과 재생의 조화에 대해 도시재생과 철거재개발을 비교하면서 역사적 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을 브랜딩의 필요성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 요건을 살펴보고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낸 사례는 경남 하동의 우리 동네 살리기 1호 준공마을 광평마을과 전남 나주의 과거와 현재 공존 공간, 전북 군산의 죽성포 짬보선창이다.

경상남도 하동 우리동네 살리기 1호 준공 마을을 방문해 예전과 달라진 마을의 모습을 비교하고 주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봤다. 경남 하동의 광평마을은 사업 전후 마을의 모습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고, 벽화나 거리 단장 등에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또, 수익창출로 마을들의 단합력도 더 높아졌다는 주민 인터뷰에 많은 공감되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언급하며 자칫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의 이면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전면적으로 다룬 것이 좋았다.

전라남도 나주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다’를 통해 나주의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을 직접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되살아난 상권을 소개했으며 도시재생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결과물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다양한 체험공간 또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밖에 도시재생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해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전북 군산의 짬보선창은 수제 맥주 창고가 들어서면서 확 달라진 전북 군산의 짬보 선창을 소개하고 지역민들의 수익창출 현황도 함께 살폈다. 수제 맥주 창고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고, 지역 어르신들의 고용도 창출된다는 점이 가장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이었고 그래서 더 비전이 보이는 사례였다.